

II. 캐나다

□ FY2010-11: 2010.4~2011.3

□ 출처

○ The Budget 2009(2009.01.27): <http://www.fin.gc.ca/fin-eng.html>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09.09):

<http://www.fin.gc.ca/access/statement-eng.asp>

○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CEAP (4차보고서, 2009.12.02):

<http://www.fin.gc.ca/pub/report-rapport/2009-4/index-eng.asp>

※ 캐나다의 경우 현재 예산안이 발표되지 않았음. 보통 2월에 예산안이 발표되나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작년 9월 발표된 경제 및 재정 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자료를 위주로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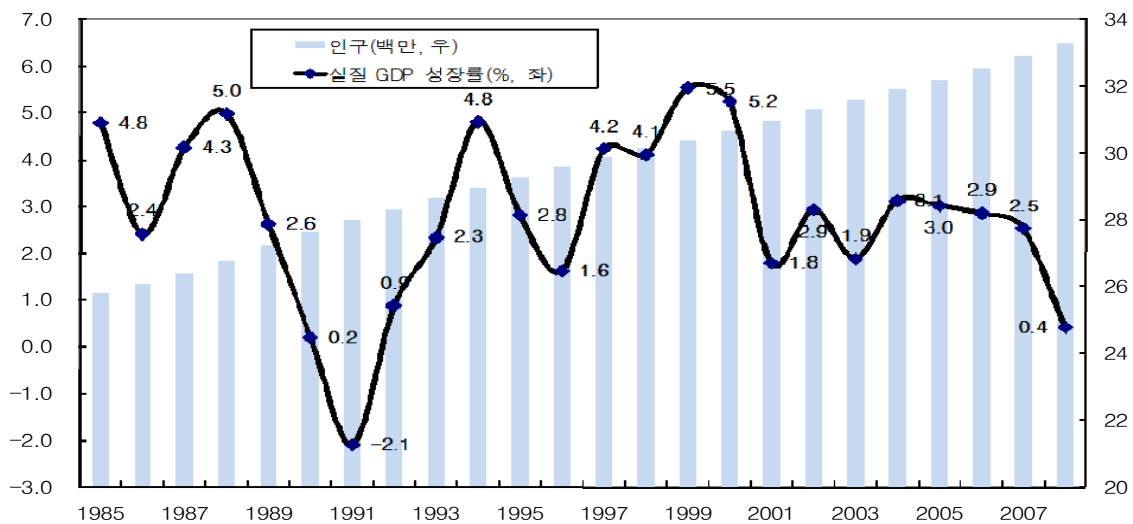
□ 환율: 1캐나다달러 = 약 1,118.9원(2009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08년 경상GDP 1조 3,002억달러(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08년 기준 68.7%(우리나라 107.0%)

□ 인구: 3,332.7만명(2008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경제 및 재정전망(2009.09)

- (경제전망) 실질GDP 성장률은 '09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10년 2.3%로 전망되나 '10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9.0%를 기록할 전망
- (재정전망) FY2010-11 총세입은 2,331억캐나다달러이고,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총지출은 2,784억캐나다달러로 재정적자

◇ 예산기조

- 향후(보통 2월) Budget2010에 발표될 예정임

◇ 예산안 내용(2009.09)

- (세입) FY2010-11 총세입은 2,331억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14.7%
- (프로그램지출) FY2010-11 프로그램지출은 2,447억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15.4%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위기 대응 조치) FY2009-10의 경기부양 예산 280억캐나다달러 중 약 97%가 집행되었음
 - CEAP을 통해서 12,000개의 프로젝트가 사회시설 및 주거 개발에 투입(8,000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FY2010-11까지 4,000개 프로젝트가 새로이 진행될 예정)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특별한 정책 없음
- (고용정책)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2년간 실업지원으로 약 70.2억캐나다달러(FY2009-10 28.7억캐나다달러, FY2010-11 41.5억캐나다달러)지원, 3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129.8억캐나다달러(FY2008-9 5.3억캐나다달러, FY2009-10 64.7억캐나다달러, FY2010-11 59.8억캐나다달러)를 지원

1. 경제 및 재정전망 (2009.9)

가. 경제전망

- (실질GDP 성장률) 실질GDP 성장률은 '09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10년 2.3%로 전망
 - '10년 캐나다 실질GDP 성장률은 미국(2.0%)보다 0.3%p 높게 전망
 - '11년 3.2%, '12년 3.3%, 2010-14년 평균 2.9%를 기록할 전망

- (명목GDP 증가율) '10년 명목GDP 증가율은 4.1%로 전년 대비 8.7%p 상승
 - '11년 5.3%, '12년 5.6%, 2010-14년 평균 5.1%를 기록할 전망

- (실업률)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10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9.0%를 기록할 전망
 - 연초예산안 전망보다 1.3%p 상향 조정함 (7.7%('09년 1월 전망치)→ 9.0%)
 - 실업률은 경기회복과 함께 서서히 감소하여 '11년 8.5%, '12년 7.8%, '15년 6.5%를 기록할 전망

- (물가) '10년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1.8%로 전년보다 1.3%p 상승
 - '11년 2.0%, '12년 2.1%, 2010-14년 평균 2.0%를 기록할 전망

<표 II-1> 경제전망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0-2014
Real GDP growth								
January 2009 private sector	-0.8	2.4	3.4	3.1	2.9	2.6		2.9
August 2009 private sector	-2.3	2.3	3.2	3.3	3.0	2.7	2.7	2.9
GDP inflation								
January 2009 private sector	-0.4	1.7	2.2	2.3	2.1	2.1		2.1
August 2009 private sector	-2.3	1.8	2.0	2.3	2.2	2.2	2.2	2.1
Nominal GDP growth								
January 2009 private sector	-1.2	4.2	5.7	5.5	5.0	4.7		5.0
Budget 2009 fiscal planning	-2.7	4.3	6.4	6.1	5.3	5.0		5.4
August 2009 private sector	-4.6	4.1	5.3	5.6	5.3	5.0	4.9	5.1
Unemployment rate								
January 2009 private sector	7.5	7.7	6.9	6.4	6.2	6.1		6.6
August 2009 private sector	8.5	9.0	8.5	7.8	7.1	6.8	6.5	7.8
Consumer Price Index (CPI) inflation								
January 2009 private sector	0.7	1.9	2.1	2.1	2.0	2.0		2.0
August 2009 private sector	0.5	1.8	2.0	2.1	2.1	2.1	2.0	2.0
U.S. real GDP growth								
January 2009 private sector	-1.8	2.1	3.5	3.2	3.0	2.7		2.9
August 2009 private sector	-2.6	2.0	3.2	3.8	3.5	3.2	3.0	3.2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FY2010-11 453억캐나다달러(GDP 대비 -2.8%)의 적자 기록 전망
 - FY2010-11 총세입은 2,331억캐나다달러이고,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총지출은 2,784억캐나다달러(프로그램지출은 2,447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 337억캐나다달러)로 재정적자 발생
 - GDP 대비 재정수지는 경기회복과 함께 FY2011-12 -1.6%, FY2012-13 -1.1%, FY2013-14 -0.6%, FY2014-15 -0.3%로 서서히 회복될 전망

<표 II-2>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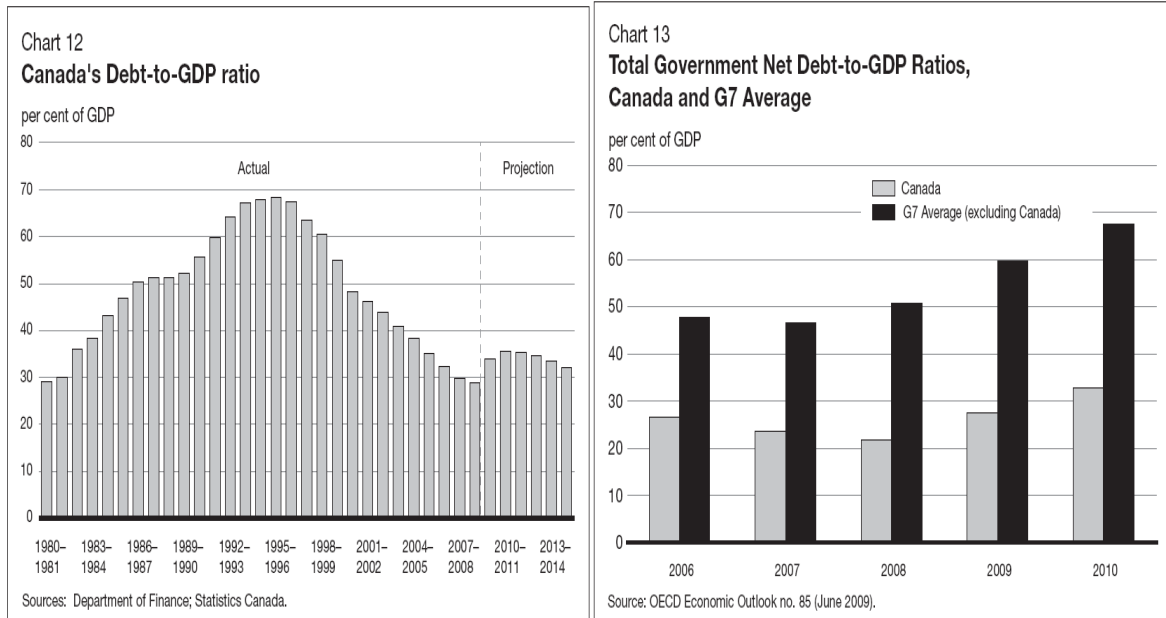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세입	2,331	2,166	2,331	2,509	2,687	2,847	2,982
프로그램지출	2,079	2,419	2,447	2,406	2,468	2,539	2,614
이자지출	310	307	337	377	412	421	420
총지출	2,388	2,725	2,784	2,783	2,881	2,960	3,034
재정수지	-58	-559	-453	-274	-194	-112	-52
정부부채	4,637	5,196	5,649	5,923	6,117	6,229	6,281
세입	14.6	14.2	14.7	15.0	15.2	15.3	15.3
프로그램지출	13.0	15.8	15.4	14.4	14.0	13.6	13.4
이자지출	1.9	2.0	2.1	2.3	2.3	2.3	2.1
재정수지	-0.4	-3.7	-2.8	-1.6	-1.1	-0.6	-0.3
정부부채	29.0	34.0	35.5	35.4	34.6	33.5	32.1

- (부채) FY2010-11 부채는 5,649억캐나다달러(GDP 대비 35.5%)로서 연초 예산안에 비해 2.4%p 상향조정
 - 연초예산안 대비 부채비율을 2~5%p 상향조정하여 FY2011-12 35.4%, FY2012-13 34.6%, FY2013-2014 33.5%, FY2014-15 32.1%로 예상
 - 연초예산안보다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순부채 비중은 G7

국가의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II-1] GDP 대비 부채비중 비교



2. 예산기조 (Budget 2009, 2009.01)

※ Budget 2010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작년 가을 발표된 경제 및 재정 전망 조정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자료에는 예산기조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Budget 2009의 기조로 대체함

□ 캐나다의 Budget 2009년 기조 : Economic Action Plan

- ① 캐나다 금융시스템 강화 및 개선
- ② 캐나다 국민에게 세제 및 일자리 지원 혜택(세제혜택, 고용보험 기술교육지원 확대, 고급인력 지원프로그램, 고용보험 동결 등)
- ③ 주택시장 부양 정책
- ④ 기반시설 구축
- ⑤ 기업 및 커뮤니티 지원

3. 예산안 내용 (2009.09)

가. 세입내역

- (개인소득세) FY2010-11 개인소득세는 1,17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7.4%)로 전년 대비 84억캐나다달러 증가
 - 경기회복과 더불어 개인소득세 또한 증가하여 FY2014-15에는 1,506억캐나다달러 까지 증가할 전망

- (법인세) FY2010-11 법인세는 26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6%)로 전년 대비 23억캐나다달러 증가
 -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경기회복과 더불어 증가하여 FY2014-15 339억 캐나다달러로 점차 증가할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10-11 재화 및 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 Tax)는 271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7%)로 전년 대비 13억캐나다달러 증가
 - 향후 점차 증가하여 FY2014-15 338억캐나다달러에 이를 전망

- (고용보험) FY2010-11 고용보험관련 수입은 172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1%)로 전년 대비 8억캐나다달러 증가
 - FY2014-15 고용보험수입은 26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3%)로 증가할 전망

<표 II-3> 세입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 - 14	2014-15
조세수입(Tax Revenues)							
개인소득세	1,160	1,087	1,171	1,245	1,333	1,417	1,506
법인세	295	238	261	292	299	321	339
기타소득세	63	46	54	58	63	68	70
총소득세(A)	1,518	1,371	1,487	1,594	1,696	1,806	1,914
소비세(Excise taxes/duties)							
재화 및 용역세	257	258	271	285	304	320	338
관세	40	34	35	36	38	40	41
기타소비세	100	100	98	99	99	100	100
총소비세(B)	398	392	403	420	441	460	479
총조세수입(C=A+B)	1,916	1,763	1,890	2,014	2,137	2,265	2,393
고용보험(D)	169	164	172	194	220	247	261
기타세입(E)	246	239	269	301	330	335	327
총세입(F=C+D+E)	2,331	2,166	2,331	2,509	2,687	2,847	2,982
개인소득세	7.3	7.1	7.4	7.4	7.5	7.6	7.7
법인세	1.8	1.6	1.6	1.7	1.7	1.7	1.7
재화 및 용역세	1.6	1.7	1.7	1.7	1.7	1.7	1.7
총조세수입	12.0	11.5	11.9	12.0	12.1	12.2	12.2
고용보험	1.1	1.1	1.1	1.2	1.2	1.3	1.3
기타세입	1.5	1.6	1.7	1.8	1.9	1.8	1.7
총세입	14.6	14.2	14.7	15.0	15.2	15.3	15.3

나. 세출내역

- (노후혜택) FY2010-11 노후혜택(Elderly Benefits)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17억캐나다달러 증가한 369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노령인구 증가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인해 향후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FY2014-15에는 455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10-11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지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20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이러한 고용보험 지출 증가는 평균 임금의 상승으로 최대 보장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침체로 인하여 실업자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임
 - 향후 경제회복과 더불어 FY2011-12년부터 실업이 감소하여 FY2014-15년 고용보험관련 지출은 179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아동보조금) FY2010-11 아동보조금(Children's Benefits)은 125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3억캐나다달러 상승
 - 향후 계속 상승하여 FY2014-15 134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이러한 아동보조금 지출 증가는 Budget2009에서 발표한 캐나다 자녀세금혜택(CCTB: Canada Child Tax Benefit) 제도 및 국가아동혜택(National Child Benefit) 제도 확대 때문임

-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Health and Social Programs) 지출은 FY2010-11 372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16억캐나다달러 증가
 - 향후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이 확대되어 FY2014-15에는 447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도시 및 커뮤니티 지원)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Cities and Communities) 지원으로
FY2014-15까지 매년 20억캐나다달러 지원

<표 II-4> 프로그램지출 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사람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노후혜택(Elderly benefits)	334	352	369	390	411	434	455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¹)	163	221	220	192	184	176	179
아동보조금(Children's benefits)	119	122	125	128	130	133	134
소계	616	695	715	709	726	742	768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Federal transfers in support of health and social programs)	333	356	372	387	407	427	447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	152	162	164	168	176	186	195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30	-28	-30	-32	-34	-36	-38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Canada's cities and communities)	10	20	20	20	20	20	20
기타		8	34	18			
소계	465	518	560	561	569	597	623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302	295	309	328	333	333	337
크라운기업(Crown Corporations)	81	76	76	76	76	76	76
기타발생비용(Other operating expenses)	615	648	684	720	754	780	804
기초지출(Underlying Spending)	998	1020	1,069	1,124	1,164	1,190	1,217
경기부양(Economic Action Plan)	0	187	103	11	10	10	6
소계	998	1207	1,172	1,135	1,174	1200	1,223
총프로그램지출	2,079	2,419	2,447	2,406	2,468	2,539	2,614
사람에 대한 주요 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3.8	4.6	4.5	4.2	4.1	4.0	3.9
기타 정부 주요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2.9	3.4	3.5	3.4	3.2	3.2	3.2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6.2	7.9	7.4	6.8	6.6	6.4	6.3
총프로그램지출	13.0	15.8	15.4	14.4	14.0	13.6	13.4

4. 주요 재정정책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CEAP (4차 보고서, 2009.12.02))

가. 경제위기 대응 조치

- FY2009-10의 경기부양 예산 280억캐나다달러 중 약 97%가 집행되었음
 - 캐나다 국민들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30억캐나다달러 예산의 100%, 실업자 지원에 29억캐나다달러 예산의 100%, 일자리 창출 85억캐나다달러 예산의 96%, 향후 경제 발전에 대한 17억캐나다달러 예산의 91%,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에 118억캐나다달러 예산의 98%를 집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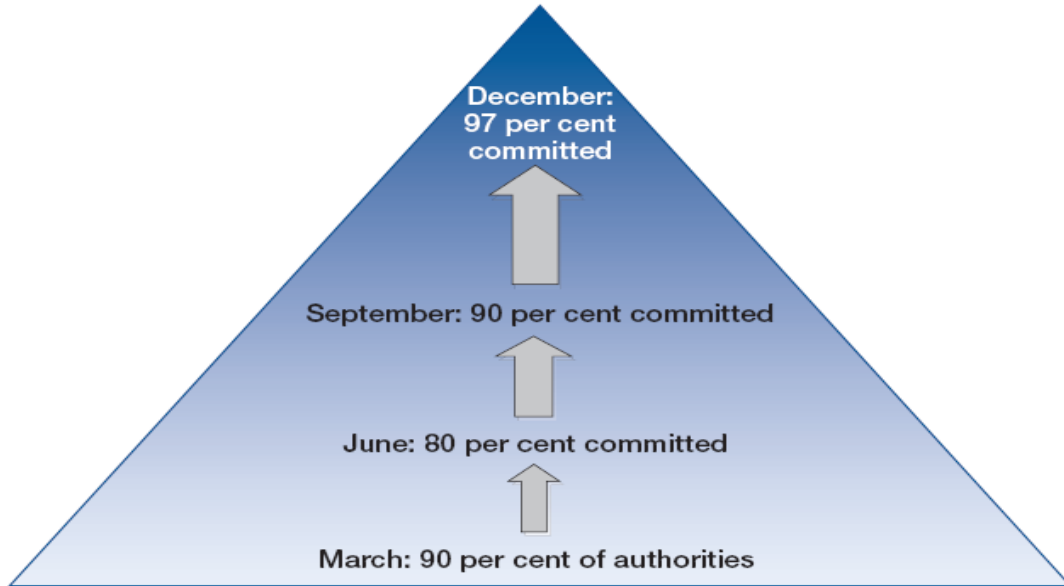
<표 II-5> FY2009-10 경기부양액 및 집행비중

(단위: 억캐나다달러, %)

	경기부양액	집행비중
조세부담 경감	30	100
실업 지원	29	100
일자리 창출	85	96
향후 경제 발전	17	91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	118	98
총계	280	97

- 경기부양책 CEAP의 진행과정
 - 1차보고서(2009.03): FY2009-10 예산의 90%의 권한을 확정
 - 2차보고서(2009.06): FY2009-10 경기부양 예산의 80% 집행
 - 3차보고서(2009.09): FY2009-10 경기부양 예산의 90% 집행
 - 4차보고서(2009.12): FY2009-10 경기부양 예산의 97% 집행

[그림 II-2] CEAP의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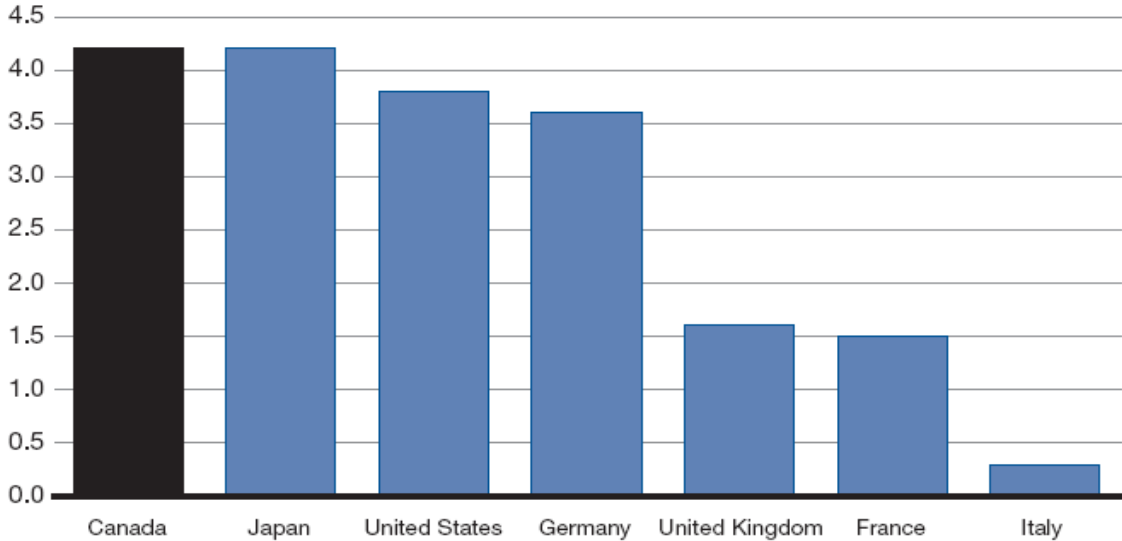


- CEAP을 통해서 12,000개의 프로젝트가 사회시설 및 주거 개발에 투입
 - 8,000개의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FY2010-11까지 4,000개 프로젝트가 새로이 진행될 예정
 - 향후 근로자들의 교육 제공 확대, 기반시설 강화(Infrastructure Projects), 사회주거 시설(Social Housing) 확장 등을 추진 예정임

- 2009년과 2010년 CEAP를 통해 집행한 캐나다의 경기부양지출규모는 G7국가 중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GDP 대비 4% 이상임
 - 미국과 독일은 GDP 대비 3.5% 이상, 영국과 프랑스는 약 1.5%, 이탈리아는 G7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인 0.5% 이하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투입

Fiscal Stimulus Flowing in 2009 and 2010, G7 Countries

per cent of GDP



Notes: IMF estimates exclude loans, including those to the auto sector, for all countries. Figure for Canada includes provincial-territorial stimulus in addition to that assumed in the Economic Action Plan as estimated by the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Source: IMF, *Update on Fiscal Stimulus and Financial Sector Measures*, April 26, 2009, p. 5.

나. 재정건전화

- 캐나다의 경우 90년대 중반까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재정건전화 관련 특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 예전 정책들: 정책지출관리제도('79년 도입), 지출통제법('92년 도입), 프로그램검토('94년 도입), 지출관리시스템('95년 도입)
 - 이러한 정책으로 캐나다 재정수지는 FY1997-98~FY2007-08까지 재정흑자를 기록하였고, '90년대 중반 GDP 대비 부채는 약 70%에서 FY2008-09 28.6%까지 하락하였음

다. 고용촉진·지원

□ (실업률) '09년 실업률은 미국보다 1.0p% 낮은 8.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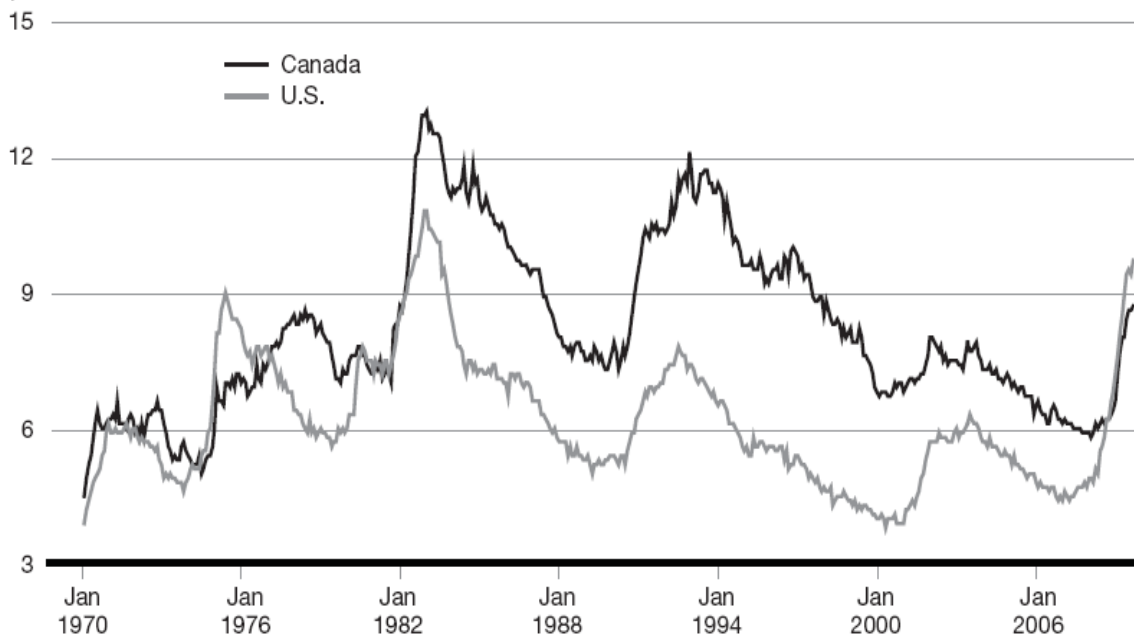
- 실업률은 90년대 중반 약 12.0%에서 '07년 6.0%로 낮아졌으나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소폭 증가하여 '09년 8.5%

[그림 II-3] 캐나다와 미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Unemployment Rate

per cent



Sources: Statistics Canada;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실업지원) 경기부양(CEAP)의 일환으로 2년간 실업 지원으로 약 70.2억캐나다 달러(FY2009-10 28.7억캐나다달러, FY2010-11 41.5억캐나다달러) 지원

-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FY2009-10 11.2억캐나다달러, FY2010-11 15.5억캐나다달러 지원
-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FY2009-10 9.4억캐나다달러, FY2010-11 9.7억캐나다달러 지원

- 낮은 고용보험료율(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ates) 유지를 위해 FY2009-10 8.2억캐나다달러, FY2010-11 16.3억캐나다달러 투입
 - '10년 고용보험료율을 전년과 마찬가지로 소득 100캐나다달러당 1.73캐나다달러로 동결하였음

<표 II-6> 실업지원(FY2009-10~FY2010-11)

(단위: 억캐나다달러)

	FY2009-10	FY2010-11	총계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	11.2	15.5	26.7
교육기회 확대	9.4	9.7	19.1
낮은 고용보험료율(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ates) 유지	8.2	16.3	24.5
총계	28.7	41.5	70.2

□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CEAP)의 일환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129.8억캐나다달러(FY2008-9 5.3억캐나다달러, FY2009-10 64.7억캐나다달러, FY2010-11 59.8억캐나다달러)를 지원하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총 160.0억캐나다달러임

- 기반구축을 위해 71.9억캐나다달러,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57.9억캐나다달러 지출

<표 II-7>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FY2008-10~FY2010-11)

(단위: 억캐나다달러)

	FY2008-09	FY2009-10	FY2010-11	총계
기반구축(Building Infrastructure)				
지방·영토 및 도시 기반투자		19.0	40.5	59.4
캐나다 원주민 기반투자		2.3	2.8	5.2
연방 기반 프로젝트 투자		4.8	2.5	7.3
소계(A)		26.0	45.8	71.9
주택건설 활성화(Stimulating Housing Construction)				
주택부문 지원	5.3	28.4	3.5	37.2
사회주거 투자		10.3	10.5	20.8
소계(B)	5.3	38.7	14.0	57.9
총계(A+B)	5.3	64.7	59.8	129.8
총기대효과		85.0	75.0	160.0